

‘김제 지평선축제’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문체부 주관...농경문화·지역 문화유산 주제 호평

전북지역 4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표축제 2개를 비롯해 최우수축제 9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 등 모두 44개의 축제를 '201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표 축제로 선정됐고, '무주반딧불이 축제'가 최우수 축제에 선정돼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또 '순창 장류 축제'가 우수 축제에 선정됐으며,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발전 가능성이 인정된 유망 축제에 뽑혔다. 문체부는 대표 축제에 5억원, 최우수 축제 2억 5000만원, 우수 축제 1억5000만원, 유망 축제에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농경문화와 지역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으며, 청정 자연을 대표하는 반딧

- '무주 반딧불이' 최우수
- '순창 장류' 우수
- '완주 와일드푸드' 유망

불이를 소재로 한 '무주 반딧불이 축제'는 환경오염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효를 주제로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장류축제는 한식 세계화 흐름에 걸맞는 축제로 평가됐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축제의 경우 레드데이(Red-Day) 이벤트를 운영하고 청국장 쿠키 만들기 체험 등 장류를 소재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 2013년 대비 2배 이상인 57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

어른에게는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신기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완주 와일드 축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순창=이동희기자 dhlee@

순창객사 현판 '순화아문'→'옥천지관'으로 교체

(淳化衙門) (玉川之館)

옛지명 사용해 본래 의미 살려

순창군은 읍내 순창객사(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의 현판을 기존 '순화아문'(淳化衙門)에서 '옥천지관'(玉川之館)으로 교체했다.

순창군은 최근 순창객사 동대청에서 옥천지관 현판식을 가졌다.

순창객사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순창관아(官衙)의 유일한 건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당과 동대청 건물만 남아있다. 군수의 외빈 접대 및 숙박장소와 왕실을 상징하는 위패를 봉안하는 제례행사를 거행한 장소다.

기존 현판인 '순화아문(淳化衙門)'은 원래 순창 관아 출입문이었던 수옥루에 걸려 있던 현판으로 8·15 광복 후 찾을 수 없었던 '순창 객사' 현판 대신에 지금까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역에서는 전주객사인 '풍패지관(豊沛之館)'처럼 순창객사를 의미하는 제대로 된 현판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순창군 관계자들이 최근 순창객사 동대청에서 옥천지관 현판식을 갖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객사를 상징하는 현판을 내걸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료 검토와 향토사학자들의 자문을 거

쳐 순창의 옛 지명인 '옥천(玉川)'을 넣어 옥천지관을 새 현판으로 달았다"며 "순창객사 주변을 전통·역사·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시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2018년까지 총 67억 투입

군산시가 올해부터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는 "중앙부처로부터 2014년 국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달 초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67억원

가운데 국·도비를 포함한 9억원을 선투자해 실시설계 등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중동지구를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존과 홍보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정비계획 수립시 '중동 당산재'를 매개로

과거 200여년 전부터 이어져온 전통문화의 계승 및 역사문화의 요소를 접목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인 근대역사문화 경관벨트를 연계 확대해 스토리가 있는 지역문화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고령자 모두가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접근하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모두를 위한 설계)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재창조를 위한 '리디자인'(Redesign)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폐가를 리모델링해 주거생활이 취약한 독거노인 등을 위한 '노인 공동 홈'도 건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돼 사업지 인근 한국서부발전, 군산대, 군산시 등과 연계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해 상호 보완하는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남 소식

매생이, 1월의 제철 수산물에 뽑혀

고단백으로 우주식량 사용

해양수산부가 전남 청정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매생이'를 1월의 제철 웰빙 수산물로 선정했다.

광합성 색소가 풍부해 짙은 녹색을 띠는 매생이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웰빙 식품이다.

보통 굴을 넣어 시원하게 국으로 끓여 먹는 매생이는 참기름을 넣어 고소하게 무쳐 먹거나 밀가루를 넣어 전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매생이에 식물성 기름을 첨가해 먹는 조리 방법이 더욱 좋다.

매생이에는 철분과 칼슘, 요오드와 같

은 무기염류가 풍부하고,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돼 있다.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물성 고단백 식품인 매생이는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매생이는 100% 전남 연안해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생산 규모는 474t, 생산액은 181억원이다.

김남용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올 겨울 영양만점 맛 좋은 매생이를 달의 제철 건강 영양식으로 권장한다"며 "지역 제철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항만청 부패방지 노력 결실

해수부 최우수기관 선정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형대)이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20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예방 노력을 평가한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반부패시스템 구축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제고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도 ▲청렴교육 및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

체제 확립 여부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목포 항만청은 청렴 독후감(수필) 공모대회와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조직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틈새청렴' 활동 등 다양한 청렴대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김형대 목포 항만청장은 "앞으로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맞춰 투명하고 해양항만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세 일 글

“행복한 농·어촌 만드는데 매진”

박종호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박종호(53)단장은 “영산강 3.4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직원이 '노사불이(勞使不二) 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원 간에 화합·신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며 잔존 부조리를 근절시키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 출신인 박 신임 단장은 1989년 공사에 입사한 후 영산강사업단 공무팀장, 기술본부 설계 진단실장, 무안 신안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할 지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임차 14억
- 충청남도 태안군 해수욕장 펜션 최적합지 1984㎡(600) 감정 7억7400 은행 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원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중은 모델 대지 390㎡(118) 건물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금매 광천동터미널 인근 6층건물 대지 661㎡(200) 건물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 15억 전세 9억 월500 회사사옥 등 적합 25억

투자 매도 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와 안진, 월률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할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 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신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광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근도로 좋음 공장, 창고 등 다양도 11억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임
- 화정역 5분거리 대지 645㎡(195) 별장용 단독주택 등 적합 3억천
- 누문동 상업용지 486㎡(147)와 주택 공시지가 2억3500 매도 3억천
- 전원주택, 빌딩 부지 담양군 봉선면 와우리 1645㎡(498) 분할 매매도 가능 평당 54만원
- 쌍촌동 신축원룸 대지 215㎡(65) 건물 418㎡(126) 안진과 원룸등 6억4천

이전해 갈 물건

-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950㎡(288) 건축물대장 있음 대출9천 매도 5백
- 무안군 망운면 자연녹지 전 2238㎡(667) 대지 555㎡(168) 대출 8천 매도 5백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대지 및 전 2,148㎡ 건물 99㎡ 도로 및 환경양호 보림사 인근 매 2억3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접,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함,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감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오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치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력

7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4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는다!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CGV영화관 옆
3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

NAVER 7월4일세배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